

네덜란드의 石油政策

I. 石油市場의 구조

네덜란드는 세계최대의 국제석유제품 유통 센터인 로테르담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장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전체 생산량('79년에 936억 M³)의 절반이상을 유럽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형가스 산출지인 Groningen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국내 총 에너지 수요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로 되어 있다.

국내 정제능력은 1983년 초 현재 약 180만 배럴/일 정도이며, 1976년 이후 유럽의 파잉정제능력 문제로 계속 정제능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가동률은 최근 2-3년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유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약 30%)와 나이지리아(약 20%)로 이 양대국에서 총수입량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다.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은 1977년에 약 23%이었던 것이 19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점차 감소하여 약 8%대에 머물고 있다.

석유제품의 국내소비와 수출의 비율은 각각 45%, 55%로서 거의 절반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경유가 약 40%, 중유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西獨(약 50%), 벨기에, 룩셈부르크, 英國(각각 10~15%)등에 수출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정유산업은 자국 총수출입의 약 25%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또한 북서유럽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유공장은 거의 다국적 기업인 메이저

의 자회사들이다. 이들의 기본적인 시장 역할은 네덜란드내 자사 판매조직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과 獨逸이나 그밖에 다른 나라의 자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물시장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테르담이라는 세계 최대의 현물시장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석유시장은 메이저들의 독무대가 아니며, 독립계 석유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들은 메이저들과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외로 이동되는 석유에 대해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로테르담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정부는 국내석유제품 가격이 현물시장과 같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4년 석유파동 이후 가격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제제도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석유회사들을 괴롭혀 온 가격의 불확실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II. 石油政策의 전개

네덜란드의 기본 에너지 정책은 Groningen 가스의 생산·수출정책에 있으며, 현재 英國 및 西獨과 체결한 장기계약에 의거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천연가스 용도는 주로 가정용 난방이며, 설비 및 기기의 연료도 거의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가스자원 보존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발전소(11개소)는 그 연료원을 천연가스에서 중유로 전환해 왔다.

발전용 중유의 유통분은 공해대책의 일환으로 메

년 낮아지고 있으며, 1978년 발전용 증유의 약 40%는 유향분 1% 이하였으며, 1980년부터는 모든 발전용 증유의 유향분은 1% 이하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석유정책은 「경제성」에서 입안, 결정되고 있으며, 로테르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고가격 고시제를 채용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입원유 및 원료 코스트의 증가분은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그 인상폭과 전가시기에 대해서는 주요제품의 가격수준 및 석유산업 전체에서의 이익 수준을 기초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고가격고시제에 의한 가격통제의 목적은 적정 가격으로 공급의 안정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석유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이익과 인센티브를 확보케 하는데 있다. 가격관리의 근거법령으로는 일반가격관리법과 긴급가격법이 있으나, 현행 최고가격제는 경제성과 석유업계 및 판매업자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신사협정에 의거하고 있다.

가격통제 대상이 되는 유종은 국내시장 공급제품으로서, 자동차용 휘발유, 輕油 및 등유와 같은 중간제품, 중유이며 그 최종 소비자 가격에 상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그밖의 제품은 공적으로 최고 가격 규제가 없으나, 일반가격 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해제되고 있어 사실상 전유종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Ⅲ. 국내석유제품 가격제도

네덜란드의 국내석유 가격은 여러가지 비용의 변동에 따라 석유가격의 상한선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가격산출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 목적은 가격변동이 심한 로테르담 현물시장과 국내시장사이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있다.

가격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1) 현물시장의 제품복합 단가를 산출한다(가격a)

로테르담, 이탈리아 및 西獨 등 3개시장의 현물가격을 약 10일간 조사하여 각 시장의 가격을 산출한 다음 <표-1>과 같은 방식에 의거 제품별 가격을 계산한다. 이때 이탈리아 시장가격에는 로테르담까지의 운임이 가산되며 운임은 AFRA(Aver-

<표-1> 시장별 적용비율

유종	비율
1)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	
로테르담	70%
이탈리아	15%
AFM	15%
2) 중유	
로테르담	80%
이탈리아	20%
3) 등유	
경유(신가격) + 15fl/Kℓ	

age Freight Rate Assessment)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각 제품가격에는 보험료 및 Freight loss(휘발유: 0.5%, 등유 및 경유: 0.4%, 중유: 0.2%)가 가산된다. 최종 산출된 가격은 길더화(네덜란드의 화폐단위)로 환산해야 되는데 환율의 적용은 그달 중순의 10일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길더화로 환산된 각 제품의 가격에 정부와 석유회사간에 정한 정제수율(표-2)을 곱해 각 비례치를 구하며 이를 합한 금액이 바로 현물시장 제품복합 단가(가격a)가 된다.

로테르담 및 이탈리아 시장의 제품가격은 Platt's Oilgram Price Report의 가격을 이용하고 西獨가격은 AFM(서독수입업자조합)의 가격을 이용한다.

<표-2> 정제수율

유종	수율
고급휘발유(항공유 포함)	9.0%
보통휘발유(나프타, LPG 포함)	9.0%
등유(JPI 포함)	4.5%
경유	32.5%
중유	41.5%
정제로스(자가연료 포함)	3.5%
계	100%

2) 국내 제품 복합단가를 계산한다(가격b)

원유의 평균도입가격(CIF)을 길더화로 환산한 금액에 정제코스트(1980년 4월 시점에서 10\$/T)를 가산한 것이 국내제품 복합단가(가격b)이다.

위와 같은 방식에 의거 산출된 가격 a가 가격 b

의 90-106% 내에 있는 한, 각 규제제품의 최고가격은 a가격과 b가격간의 변동폭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 그러나 만약 90% 이하이거나 106%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와 석유회사들간에 가격협상을 하게 되고, 정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범위는 대폭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 공식은 각 제품별로 최고 인상폭을 정해놓고 있다. 제품별 최고가격의 개정 상한선은 자동차용 휘발유가 10fl/t (부가가치세 포함), 자동차용 경유 및 등유는 5 fl/t (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경유 및 경질중유는 5 fl/t (부가가치세 제외), 중유는 40fl/t (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위에서 산출한 가격은 공장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 (표-3)과 적정마진 (최대 6%)을 가산한 것이 최종 가격이며 여기에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18%를 가산한 것이 최종소비자 가격이 된다.

한편 원유코스트의 제품가격전가는 통상 해당월의 평균일부터 45일 이내에 행해지기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가격의 인상은 월초에 실시되어 경제성은 최고가격의 변경 여하에 불문하고 매월 발표하고 있다. 석유회사와 판매업자의 마진은 정부와 업

〈표-3〉 소비세와 대기오염세

제 품	세 액
자동차용 휘발유	47.86fl/100ℓ
자동차용 경유	18.64fl/100ℓ
경유 및 경질중유	3.37fl/100ℓ
등 유	3.37fl/100ℓ
중질중유	15.08fl/t

계간의 협의에 의해 매년 5월 1일에 수정되도록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가격결정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최저가격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물시장 가격이 국내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이 공식의 106% 규정은 최고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물시장가격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90% 규정에 따라 정해진 최고가격은 실제 공급가격이 이 최고가격을 훨씬 하회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사실상 이 가격결정 방식은 현물시장의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을 때에만 독립계 석유수입업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사실상 네덜란드는 자유시장이다. 현물시장의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을 때는 이 공식은 독립계 석유수입업자들이나 정제업자들에게 모두 불리하다.*
(주간석유에너지정보)

□ 原油價格 展望 □

原油價 1993年 52弗로 上昇 展望

지난 수년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던 原油價格은 앞으로 10년후면 두배, 그리고 20년후면 6배나 오를 것이라고 Shell사가 전망했다.

Shell사는 OPEC基準原油인 Arab.Light 가격이 현행 배럴당 29달러에서 1993년에는 52달러, 2005년에는 192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Shell사는 세계경제침체와 이에따른 원유공급 과잉현상이 도래하기 불과 수년전에 1985년의 原油價格이 5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油價展望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Shell사의 전망은 인플레이션을 1985년 5

%, 1986년 6%, 1987~1993년 6.5%, 그리고 1994년 이후는 6%로 前提한 것이다. 이와 달리 Conoco사는 최근 한 報告書를 통해 原油價格은 1980년대 하반기동안 오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떨어질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Conoco사는 1990년대에는 非OPEC產油量이 감소되고 世界石油需要가 증가됨에 따라 原油價格이 인플레이션보다 다소 빠른 속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同社는 이어 美國의 원유수입의존도가 현재의 26%에서 2000년에는 45%까지 높아질 것이며, 自由世界石油需要에 대한 OPEC의 점유율이 현재의 41%에서 54%로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